

10 2024
월호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조사연구팀

월간
HALLYU
REPORT
한류리포트

ISSN 3022-0793

조사 지역 : 총 10개국

- 아시아
대만,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 미주
멕시코, 미국, 캐나다
- 유럽
스웨덴, 폴란드
- 아프리카
이집트
- 오세아니아
호주

조사 방법

- 2024년 9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해외통신원 리포트,
- 글로벌 OTT 순위 집계 사이트,
문화체육관광 월간동향,
관세청 수출입통관자료 활용

조사 내용

- 콘텐츠 산업(케이팝, 영화, 출판)
- 소비재 산업(음식)
- 기타(문화정책)

문의

김아영 팀장
(ahyoung@kofice.or.kr / 02-3150-4818)
윤도경 연구원
(doging@kofice.or.kr / 02-3150-4822)

02
2024년 9월 한류 콘텐츠산업 통계

08
한류 콘텐츠산업 주요 이슈

11
주목할 만한 한류 연관산업 이슈

12
기타 문화정책

13
10월 한류 동향 논평

14
문화체육관광 수출 동향

16
엔터/미디어 주가 동향

22
해외 공연 현황

KOFICE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01

2024년 9월 한류 콘텐츠산업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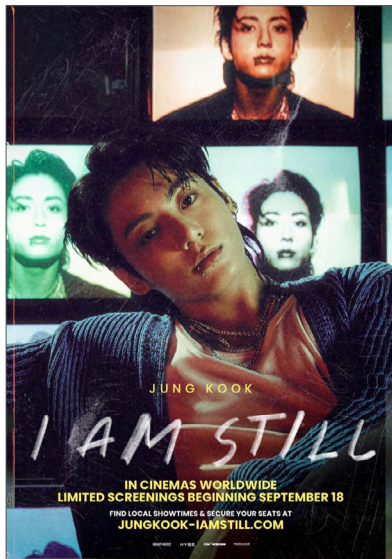
오세아니아

영화 <정국: 아이 엠 스틸>, 2주 연속 호주 박스오피스 안착

호주

BTS 정국 다큐멘터리 <정국: 아이 엠 스틸(JUNG KOOK: I AM STILL)>, 9월 18일 120여 개국에서 동시 개봉. 호주에서는 78개 상영관에서 상영 시작. 9월 마지막 주까지 2주 연속 호주 박스오피스에 오르며 누적 매출액 12만 3,366달러(약 1억 7158만 원) 기록*

* 박스오피스모조(https://www.boxofficemojo.com/weekend/2024W39/?area=AU&ref_=bo_we_nav)



영화 <정국: 아이 엠 스틸> 포스터
(빅히트 뮤직, 하이브, CGV ICECON)

1. 《Bloomberg》(2024. 10. 8). Netflix's Latest Runaway Hit Is a Korean Reality Cooking Show,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4-10-08/winner-of-netflix-hit-korean-cooking-show-culinary-class-wars-napoli-mafia>
2. 《The Hollywood Reporter》(2024. 10. 14). Netflix's Korean Reality Series 'Culinary Class Wars' Set for Season 2, <https://www.hollywoodreporter.com/tv/tv-news/netflix-korea-culinary-class-wars-season-2-1236032158/>
3. 《民視新聞網》(2024. 10. 7). 台版《黑白大廚》誰最有資格當評審? 全網狂推5位「美食界大咖」!, <https://www.ftvnews.com.tw/news/detail/2024A07W0040>
4. 《城市學》(2024. 10. 7). 《黑白大廚》料理階級冠軍白種元? 廚神「致富韓式燒肉」台灣有, <https://city.gvm.com.tw/article/116159>
5. 《The Straits Times》(2024. 9. 26). Binge-worthy: Culinary Class Wars is Top Chef, MasterChef and Physical: 100 in one neat bite, <https://www.straitstimes.com/life/entertainment/binge-worthy-culinary-class-wars-is-top-chef-masterchef-and-physical-100-in-one-neat-bite>

넷플릭스 오리지널 리얼리티 시리즈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 넷플릭스 TOP 10 TV(비영어) 부문 1위 기록

미주

미국

경제지 《블룸버그(Bloomberg)》는 온라인에서 다수 언급되고, 맘을 생성시키며 한국 외식업계에 활기를 불어넣은 <흑백요리사>를 “최근 넷플릭스 최대 히트작”으로 언급.¹ 《더 할리우드 리포터(The Hollywood Reporter)》는 한국 드라마에 이은 K-리얼리티의 흥행에 주목하며 <흑백요리사> 시즌 2 제작 확정 소식을 전함²

아시아

대만

‘黑白大廚: 料理階級大戰(흑백대주: 요리 계급 대전)’이라는 제목으로 공개된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 공개 일일(9.18.) 대만 넷플릭스 TV 프로그램 부문 8위로 진입해 말일까지 연속 차트인* 《FTV뉴스(民視新聞網)》는 “대만판 <흑백요리사>를 제작한다면 심사위원으로 어떤 셰프를 섭외할지가 현지 시청자들 사이에서 화제”라며 현지 미식계 가장 5인 정연기(阿基師), 강진성(江振誠), 제임스(詹姆士), 胡天蘭(호천란), 하순개(何順凱)를 언급.³ 한편 매거진 《도시학(城市學)》은 2019년 <스트리트 푸드 파이터 2>로 미식 천국 타이베이를 소개하고, 2022년 11월에는 ‘본가 익스프레스’ 대만 1호점을 오픈한 바 있는 <흑백요리사> 심사위원 백종원에 주목⁴

* 플릭스패트롤(<https://flixpatrol.com/>)

말레이시아

공개 일일 말레이시아 넷플릭스 TV 프로그램 부문 5위로 진입해 말일까지 연속 차트인* 현지 시청자들은 틱톡 등 소셜미디어에 해시태그 #culinaryclasswars를 활용해 안정재 셰프의 심사평, 마라 크림 새우 딤섬 요리법 등 수많은 패러디물을 공유

* 플릭스패트롤(<https://flixpatrol.com/>)

싱가포르

공개 일일 싱가포르 넷플릭스 TV 프로그램 부문 2위로 진입해 말일까지 연속 차트인하며 9월 기준 4위 기록*

《더 스트레이츠 타임스(The Straits Times)》는 ‘백수저와 흑수저 두 계급의 경쟁’, ‘유명 셰프의 출연’, ‘풍성한 한국 요리’를 이유로 “<흑백요리사>는 몰아볼 가치가 있다(Binge-worthy).”고 추천.⁵ 현대자동차그룹과 한국계 미국인 셰프 코리 리(Corey Lee)가 2024년 6월 싱가포르에 오픈한 한식 레스토랑 ‘나오(Na Oh)’를 비롯, 한식 관련 요식업체 주목

* 플릭스패트롤(<https://flixpatrol.com/>)



넷플릭스 TOP 10 TV(비영어) 부문 1위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
(넷플릭스, <https://www.netflix.com/tudum/top10/tv-non-english?week=2024-09-29>)

10월 케이팝 차트

유튜브 로제, 브루노 마스 <APT.> 뮤직비디오 1억 뷰 돌파하며 10월 4주차 1위 진입

스포티파이 지민 <Who>, 발매 이후 14주 연속 톱 5 안착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뮤비) 89위 리사/New Woman 92위 리사/Rockstar (아티스트) 69위 방탄소년단 95위 블랙핑크 98위 스트레이 키즈	(뮤비) 99위 리사/Rockstar (아티스트) 65위 방탄소년단 91위 블랙핑크 93위 스트레이 키즈	(뮤비) 2위 제니/Mantra 35위 리사/Moonlit Floor 49위 세븐틴/LOVE, MONEY, FAME 74위 있지/GOLD 84위 리사/Rockstar 86위 리사/New Woman (아티스트) 39위 제니 67위 방탄소년단 93위 블랙핑크	(뮤비) 1위 로제, 브루노 마스(Bruno Mars)/APT. 5위 제니/Mantra 8위 에스파/Whiplash 31위 리사/Moonlit Floor 53위 리사/Rockstar 64위 리사/New Woman 73위 아일랏/Cherish(My Love) 94위 캣츠아이/Touch (아티스트) 8위 로제 66위 에스파 70위 방탄소년단 77위 제니 80위 블랙핑크
	4위 지민/Who 43위 정국, 라토(Latto)/Seven 62위 리사/New Woman	3위 지민/Who 22위 리사/Moonlit Floor 39위 정국, 라토(Latto)/Seven	3위 지민/Who 11위 제니/Mantra 16위 리사/Moonlit Floor 44위 정국, 라토(Latto)/Seven 94위 캣츠아이/Touch	1위 로제, 브루노 마스(Bruno Mars)/APT. 4위 지민/Who 11위 제니/Mantra 13위 리사/Moonlit Floor 52위 정국, 라토(Latto)/Seven 78위 캣츠아이/Touch 99위 뷔/Love Me Again

10월 OTT 시리즈 순위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본팩토리 제작 tvN 월화드라마 <손해 보기 싫어서> 인기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TV 프로그램) 2위 <손해 보기 싫어서>	(TV 프로그램) 4위 <손해 보기 싫어서>	(TV 프로그램) 6위 <손해 보기 싫어서>	(TV 프로그램) 7위 <손해 보기 싫어서>

9월 Top 50 내 K-콘텐츠*

* 한국리서치 글로벌 OTT 인덱스 활용

- tvN 주말드라마 <엄마친구아들>, 각국 톱 5에 최다 진입한 K-콘텐츠. 이외 <선재 업고 튀어>, <낮과 밤이 다른 그녀> 등 로맨스 드라마 인기
- 태국에서 <동이(2010)>, 인도네시아에서 <별에서 온 그대(2013)>, 필리핀에서는 <피노키오(2014)> 등 2010년대 드라마가 톱 50에 진입



대만

• <엄마친구아들> 포함 K-콘텐츠 16편 톱 50 진입

순위	콘텐츠명(영문)	공개연도	연출/극본	장르
2	엄마친구아들 Love Next Door	2024	유제원/신하은	로맨틱코미디
11	닥터슬럼프 Doctor Slump	2024	오현중/백선우	메디컬, 로맨틱코미디
12	굿파트너 Good Partner	2024	김가람/최유나	드라마, 법정
23	무빙 Moving	2023	박인제,박윤서/강풀	드라마, 스릴러, 판타지
24	모범택시 Taxi Driver	2023	이단, 장영석/오상호	복수
26	조선 정신과 의사 유세풍 Poong, the Joseon Psychiatrist	2023	박원국/박슬기, 이봄	메디컬, 드라마, 코미디
27	빈센조 Vincenzo	2021	김희원/박재범	드라마, 코미디
28	화인가 스캔들 Red Swan	2024	박홍균/최윤정	로맨스, 드라마, 액션
30	노 웨이 아웃: 더 룰렛 No Way Out: The Roulette	2024	최국희, 이후빈/ 이수진	스릴러, 범죄
31	낮과 밤이 다른 그녀 Miss Night and Day	2024	이형민, 최선민/박지하	로맨틱코미디, 범죄, 스릴러
32	악마판사 The Devil Judge	2021	최정규/문유석	법정, 미스터리, 범죄
35	무인도의 디바 Castaway Diva	2023	오충환/박혜련, 은열	드라마
36	봄밤 One Spring Night	2019	안판석/김은	로맨스
37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Daily Dose of Sunshine	2023	이재규, 김남수/이남규, 오보현, 김다희	드라마
40	경성크리처 Gyeongseong Creature	2024	강은경/정동윤	호러
47	초면에 사랑합니다 The Secret Life Of My Secretary	2019	이광영/김아정	로맨틱코미디



말레이시아

• K-콘텐츠 18편 톱 50 진입. <낮과 밤이 다른 그녀>, <가족X멜로> 등

순위	콘텐츠명(영문)	공개연도	연출/극본	장르
1	낮과 밤이 다른 그녀 Miss Night and Day	2024	이형민, 최선민/박지하	로맨틱코미디, 범죄, 스릴러
5	가족X멜로 Romance in the House	2024	김다예/김영윤	로맨틱코미디
6	엄마친구아들 Love Next Door	2024	유제원/신하은	로맨틱코미디
8	싸우자 귀신아 Bring It On, Ghost	2016	박준화/이대일	로맨틱코미디, 호러
10	THE K2	2016	곽정환, 성용일/장혁린	범죄, 드라마
11	스위트홈 Sweet Home	2024	이응복, 박소현/홍소리, 박소정	스릴러, 호러
13	선재 업고 튀어 Lovely Runner	2024	윤종호/이시은	판타지, 로맨스
19	빈센조 Vincenzo	2021	김희원/박재범	드라마, 코미디
20	런닝맨 Running Man	2010	최형민/양효임 등	버라이어티
21	손해 보기 싫어서 No Gain, No Love	2024	김정식/김혜영	로맨틱코미디
22	우연일까? Serendipity's Embrace	2024	송현욱, 정광식/박그로	로맨틱코미디
28	눈물의 여왕 Queen of Tear	2024	장영우, 김희원/박지은	로맨틱코미디
29	호텔 델루나 Hotel Del Luna	2019	오충환, 김정현/홍정은, 홍미란	로맨틱코미디, 판타지
33	힘쎈여자 강남순 Strong Girl Namsoon	2023	김정식, 이경식/백미경	코미디, 범죄
36	새벽 2시의 신데렐라 Cinderella at 2AM	2024	서민정, 배희영/오은지	로맨틱코미디
40	너도 인간이니? Are You Human?	2018	차영훈, 윤종호/조정주	SF, 로맨틱코미디
45	미남당 Cafe Minamdang	2022	고재현, 윤라영/박혜진	코미디, 범죄, 스릴러
46	여신강림 True Beauty	2020	김상협/이시은	청춘, 로맨틱코미디



싱가포르

• <엄마친구아들> 포함 K-콘텐츠 9편 톱 50 진입

순위	콘텐츠명(영문)	공개연도	연출/극본	장르
5	엄마친구아들 Love Next Door	2024	유제원/신하은	로맨틱코미디
8	새벽 2시의 신데렐라 Cinderella at 2AM	2024	서민정, 배희영/오은지	로맨틱코미디
23	스위트홈 Sweet Home	2024	이응복, 박소현/홍소리, 박소정	스릴러, 호러
28	우연일까? Serendipity's Embrace	2024	송현욱, 정광식/박그로	로맨틱코미디
29	미운 우리 새끼 My Little Old Boy	2016	박종원/김세연 등	버라이어티
42	이 연애는 불가항력 Destined With You	2023	남기훈, 김재한/노지설	로맨틱코미디
45	그녀의 사생활 Her Private Life	2019	홍충찬, 장양호/김혜영	로맨틱코미디
48	스캔들 Snow White's Revenge	2024	최지영/황순영	복수
50	선재 업고 튀어 Lovely Runner	2024	윤종호/이시은	판타지, 로맨스

인도네시아

• K-콘텐츠 26편 톱 50 진입. <선재 업고 튀어>, <검법남녀>, <엄마친구아들> 등

순위	콘텐츠명(영문)	공개연도	연출/극본	장르
2	선재 업고 튀어 Lovely Runner	2024	윤종호/이시은	판타지, 로맨스
3	검법남녀 Partners For Justice	2019	노도철, 한진선/민지은, 조원기	범죄, 수사
4	엄마친구아들 Love Next Door	2024	유제원/신하은	로맨틱코미디
6	스위트홈 Sweet Home	2024	이응복, 박소현/홍소리, 박소정	스릴러, 호러
7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 The Frog	2024	모완일/손호영	미스터리, 스릴러
8	빈센조 Vincenzo	2021	김희원/박재범	드라마, 코미디
9	낮과 밤이 다른 그녀 Miss Night and Day	2024	이형민, 최선민/박지하	로맨틱코미디, 범죄, 스릴러
13	완벽한 가족 Perfect Family	2024	유키사다 이사오/최성걸	미스터리, 스릴러
15	런닝맨 Running Man	2010	최형인/양효임 등	버라이어티
16	웰컴투 삼달리 Welcome to Samdalri	2023	차영훈, 김형준/권혜주	로맨틱코미디
17	이번 생은 처음이라 Because This Is My First Life	2017	박준화, 남성우/윤난중	로맨틱코미디
19	굿파트너 Good Partner	2024	김가람/최유나	드라마, 법정
24	가족X멜로 Romance in the House	2024	김다예/김영윤	로맨틱코미디
26	후아유 - 학교 2015 Who Are You: School 2015	2015	백상훈, 김성윤/김민정, 임예진	학원, 로맨스
29	미씽: 그들이 있었다 Missing: The Other Side	2022	민연홍, 이예림/반기리, 정소영	판타지, 미스터리, 스릴러
31	하이클래스 High Class	2021	최병길/스토리홀릭	미스터리, 스릴러
32	부부의 세계 The World Of The Married	2020	모완일, 김성진/주현	로맨스, 멜로
33	별에서 온 그대 My Love From The Star	2013	장태유, 오충환/박지은	로맨틱코미디
34	대박부동산 Sell Your Haunted House	2021	박진석, 이웅희/하수진, 이영화, 정연서	SF, 판타지
35	서진이네 Jinny's Kitchen	2024	나영석/이우정 등	버라이어티
36	손해 보기 싫어서 No Gain, No Love	2024	김정식/김혜영	로맨틱코미디
38	우연일까? Serendipity's Embrace	2024	송현욱, 정광식/박그로	로맨틱코미디
41	모범택시 Taxi Driver	2023	이단, 장영석/오상호	복수
47	어쩌다 마주친, 그대 My Perfect Stranger	2023	강수연, 이웅희/백소연	로맨스, 드라마
49	미운 우리 새끼 My Little Old Boy	2016	박종원/김세연 등	버라이어티
50	언니네 산지직송 Fresh off the Sea	2024	김세희/김란주 등	버라이어티

● 일본

• K-콘텐츠 2편 <철인왕후>, <눈물의 여왕> 톱 50 진입

순위	콘텐츠명(영문)	공개연도	연출/극본	장르
29	철인왕후 Mr. Queen	2020	윤성식, 장양호/박계옥, 최아일	시대, 로맨틱코미디
44	눈물의 여왕 Queen of Tears	2024	장영우, 김희원/박지은	로맨틱코미디

태국

• <낭만닥터 김사부> 포함 K-콘텐츠 12편 톱 50 진입

순위	콘텐츠명(영문)	공개연도	연출/극본	장르
3	낭만닥터 김사부 Dr. Romantic	2023	유인식, 강보승/강은경, 임혜민	메디컬
6	블러드 Blood	2015	기민수, 이재훈/박재범	메디컬, 판타지, 멜로
11	군주 - 가면의 주인 The Emperor Owner Of The Mask	2017	노도철, 박원국/박혜진, 정해리	시대, 로맨스
15	보고싶다 Missing You	2012	이재동, 박재범/문희정	로맨스
18	기황후 The Empress Ki	2013	한희, 이성준/장영철, 정경순	시대
21	동이 Dong Yi	2010	이병훈, 김상협/김이영	시대, 로맨스
23	내 아이디는 강남미인 My ID Is Gangnam Beauty	2018	최성범, 김상훈/최수영	로맨스, 청춘
24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Extraordinary Attorney Woo	2022	유인식/문지원	법정
30	백패커 The Backpacker Chef	2024	신찬양 등	버라이어티
39	우씨왕후 Queen Woo	2024	정세교/이병학	시대, 액션
40	스위트홈 Sweet Home	2024	이응복, 박소현/홍소리, 박소정	스릴러, 호러
49	기름진 멜로 Wok Of Love	2018	박선호, 함준호/서숙향	로맨스

필리핀

• K-콘텐츠 17편 톱 50 진입. <엄마친구아들>, <낮과 밤이 다른 그녀> 등

순위	콘텐츠명(영문)	공개연도	연출/극본	장르
3	엄마친구아들 Love Next Door	2024	유제원/신하은	로맨틱코미디
5	낮과 밤이 다른 그녀 Miss Night and Day	2024	이형민, 최선민/박지하	로맨틱코미디, 범죄, 스릴러
6	선재 업고 튀어 Lovely Runner	2024	윤종호/이시은	판타지, 로맨스
8	스위트홈 Sweet Home	2024	이응복, 박소현/홍소리, 박소정	스릴러, 호러
12	낭만닥터 김사부 Dr. Romantic	2023	유인식, 강보승/강은경, 임혜민	메디컬
16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 The Frog	2024	모완일/손호영	미스터리, 스릴러
17	철인왕후 Mr. Queen	2020	윤성식, 장양호/박계옥, 최아일	시대, 로맨틱코미디
18	피노키오 Pinocchio	2014	조수원, 신승우/박혜련	판타지, 로맨스
21	눈물의 여왕 Queen of Tears	2024	장영우, 김희원/박지은	로맨틱코미디
24	가족X멜로 Romance in the House	2024	김다예/김영운	로맨틱코미디
25	닥터 이방인 Doctor Stranger	2014	진혁, 홍종찬, 조남국, 남건/박진우, 김주	메디컬, 로맨스
26	킹더랜드 King the Land	2023	임현욱, 최선민/최름	로맨틱코미디
27	힘센여자 강남순 Strong Girl Namsoon	2023	김정식, 이경식/백미경	코미디, 범죄
29	열녀박씨 계약결혼뎐 The Story of Park's Marriage Contract	2023	박상훈, 강채원/고남정	시대, 로맨스
33	반짝이는 워터멜론 Twinkling Watermelon	2023	손정현, 유범상/진수완	판타지, 청춘
36	아스달 연대기 Arthdal Chronicles	2019	김원석/김영현, 박상연	액션, 시대, 판타지
46	푸른 바다의 전설 The Legend Of The Blue Sea	2016	진혁, 박선호/박지은	로맨스, 판타지

02

한류 콘텐츠산업 주요 이슈

1. 케이팝

아랍권에서도 주목하는 케이팝의 글로벌 인기

이집트

이집트 유튜버 아흐마드 엘 간도르(Ahmed El Ghandour)가 9월 1일 업로드한 한류 소개 영상이 조회수 200만 회를 돌파하며 인기. NRG, 젝스키스, 보아 등 1세대 아이돌부터 BTS, 블랙핑크에 이르는 케이팝의 역사를 소개. 인기 요인으로는 ‘귀에 맴도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멜로디(Earworm)’, ‘영어 가사’, ‘즐거워 시각적 경험’, ‘팬덤 문화’를 꼽음.⁶ 또한 “유튜브 톱 30에 6개의 케이팝 영상이 올랐다.”고 언급(‘24년 7월 ‘좋아요’ 기준). 3위(43.54백만 회) 핑크퐁 OST <Baby Shark Dance>, 7위(37.60백만 회) BTS의 <Dynamite>, 21위(28.86백만 회) 싸이의 <강남스타일>, 22위(28.66백만 회) BTS의 <작은 것들을 위한 시>, 27위(25.56백만 회) 블랙핑크의 <Kill This Love>, 30위(24.96백만 회) 블랙핑크의 <How You Like That>이 그에 해당

6. 유튜브 계정(@NewMedia_Life), <https://www.youtube.com/watch?v=1VbDzalVuJI>



“케이팝은 락, 팝, 힙합 그 어딘가에 위치해 있다.”고 분석한 알 다헤(AI Daheeh)⁶



알 다헤(AI Daheeh)가 설명한 한류 확산 과정⁶

해외통신원 리포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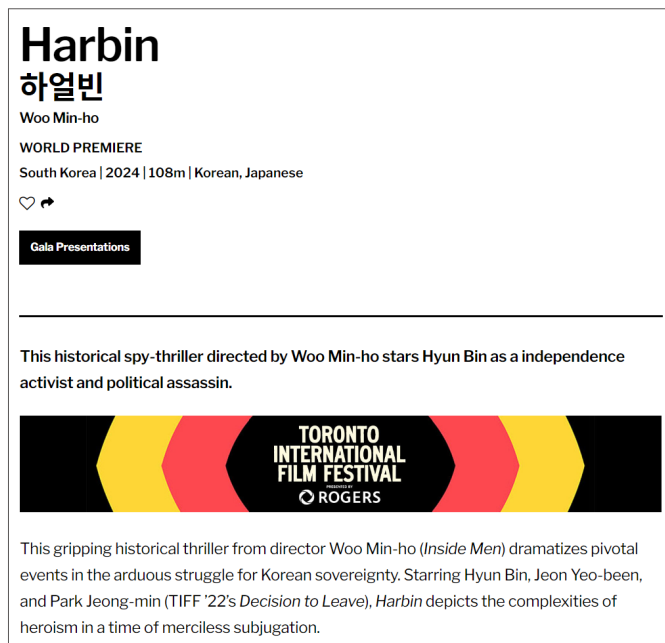
이집트 [문화정책/이슈] 아랍권에서 바라본 한국문화 <https://url.kr/opmc36>

2. 영화

<베테랑2>, <하얼빈> 등 한국 영화 5편, 제49회 토론토국제영화제 초청

캐나다

제49회 토론토국제영화제(tiff, 9.5~15.)는 류승완 감독의 <베테랑2(, THE EXECUTIONER)>, 우민호 감독의 <하얼빈(HARBIN)>, 이언희 감독의 <대도시의 사랑법(Love in the Big City)>, 한국계 캐나다인 헬렌 리 감독의 <텐더니스(TENDERNESS)>, 홍상수 감독의 <수유천(BY THE STREAM)>까지 총 5편의 한국 영화 소개. 영화제 측은 <하얼빈>으로 우민호 감독과 함께 레드카펫을 밟은 배우 현빈과 이동욱에 대해 “아마도 tiff 역사상 가장 큰 함성을 받았다(probably the loudest carpet of the festival so far).”고 언급. 한편 한국계 미국인 수 킴(Sue Kim) 감독의 <마지막 해녀들(The Last of The Sea Women)>이 넷팩상(NETPAC Award)을 수상해 주목. 제주도 바다의 전사 해녀(haenyeo)의 삶을 감동적으로 묘사한 다큐멘터리로 아름다움, 유머러스함, 동정심을 그려냈다고 평가됨



제49회 토론토국제영화제에서 다섯 차례 상영된 <하얼빈>
(토론토국제영화제(tiff))



넷팩상을 수상한 수 킴 감독의 <마지막 해녀들>
(토론토국제영화제(tiff))

해외통신원 리포트

캐나다 [통계자료] TIFF(Toronto International Film Festival) 2024 하이라이트 <https://url.kr/pjlsyq>

3. 출판

세계 무대 오르는 K-문학, 2025 바르샤바국제도서전 주빈국으로 선정된 한국

폴란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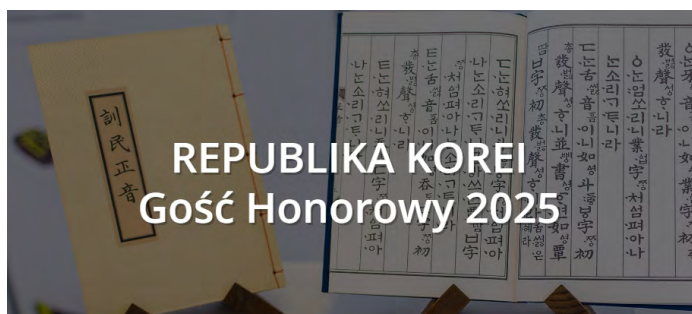
이당권 주폴란드한국문화원장, 아체크 오릴(Jacek Oryl) 바르샤바국제도서전 디렉터, 발데마르 미찰스키(Waldemar Michalski) 역사문화재단 이사장이 공식 협약을 체결하며 한국을 2025 바르샤바국제도서전 주빈국으로 선정(9.3). 본 협약은 한국-폴란드 수교 35주년을 맞이한 해에 체결돼 양국 수교 역사에 의미를 더함.

2025 바르샤바국제도서전(Międzynarodowe Targi Książki w Warszawie)은 5월 15일부터 18일까지 문화과학궁전(Palac Kultury) 및 플라크 데필라드(Plac Defilad)에서 총 4일간 진행될 예정

* 한국은 최근 2년 연속(2023년 손원평 작가, 신경숙 작가, 2024년 정보라 작가) 바르샤바국제도서전에 참가한 바 있음. 바르샤바국제도서전은 2023년에 우크라이나, 2024년에는 이탈리아를 주빈국으로 선정해 5월 중 4일간 문화과학궁전 및 플라크 데필라드에서 개최됨



2025 바르샤바국제도서전 주빈국 선정 관련 공식 협약을 체결하는 모습
(바르샤바국제도서전)



2025년 주빈국에 한국을 선정했음을 알린 바르샤바국제도서전
(바르샤바국제도서전)

해외통신원 리포트

폴란드 2025년 바르샤바 국제 도서전 주빈국으로 협약 체결한 한국 <https://url.kr/pqhusk>

03

주목할 만한 한류 연관산업 이슈

음식

음식으로 향하는 K-콘텐츠 경험

미국/뉴욕



‘코리아 페스트 NYC’ 홍보 포스터
(컬처 랩 롱아일랜드 시티(Culture Lab LIC) 홈페이지,
<https://www.culturelablic.org/>)

한국 음식 페스티벌 ‘코리아 페스트(Korea Fest)’, 뉴욕에서 첫 개최(9.8.

컬처 랩 롱아일랜드 시티 Culture Lab LIC). 케이팝 댄스, 디제이 공연부터

K-뷰티, K-푸드까지 한국문화를 폭넓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특히 트렌디한 레스토랑, 푸드트럭 등을 돌아다니며 다양한 요리를 시도하는 젊은 푸디들(foodies)의 수요에 맞춰 총 17개의 음식 부스를 마련.

아빠 피자(Appas Pizza)의 ‘불고기 피자(Bulgogi Pizza)’, ‘불닭 피자(Buldak Pizza)’, 서울 비스트로(Seoul Bystro)의 ‘소떡소떡(Sotteok Sotteok)’, 갈비 꼬치(Galbi Skewers) 등

다양한 K-푸드를 선보임. 일본의 ‘재팬 페스(Japan Fes)’는 2016년부터,

중국의 ‘드래곤 페스트(Dragon Fest)’가 2023년부터 뉴욕 내 연례행사로

자리 잡은 가운데 ‘코리아 페스트’가 첫 등장해 기대를 더함

멕시코



주멕스 비다 한정판, ‘케이팝 스페셜 에디션’
(펄사(FEMSA))

멕시코 최대 음료 및 리테일 기업 펄사(FEMSA), 케이팝 아이돌에서 영감 받아

‘주멕스 비다 케이팝 스페셜 에디션(Edición Especial K-Pop de Jumex Bida)’ 출시.

패키지에 한글로 ‘주멕스 비다’를 기재한 음료 5종(포도맛, 딸기맛, 망고맛,

사과맛, 구아바맛)을 계열사가 운영하는 옥소(OXXO)를 포함한 현지 편의점에

선보임. 한편 멕시코시티 노노알코(Nonoalco, CDMX)에는 케이팝을 테마로 한

옥소 매장을 한정 오픈하며 해당 음료 적극 홍보에 나섬(7.23.~8.22.)

해외통신원 리포트

미국/뉴욕 뉴욕에서 열린 첫 한국 음식 페스티벌, ‘코리아 페스트(Korea Fest)’ <https://url.kr/jkyskb>

멕시코 펄사(FEMSA)에서 출시한 케이팝 스페셜 에디션 ‘주멕스 비다(Jumex Bida)’ <https://url.kr/jiulof>

04

기타_문화정책

2025년 문화부에 93억 크로나 할당한 스웨덴 정부

스웨덴

스웨덴 정부는 2025년 문화부 예산으로 93억 크로나(약 1조 2,466억 원)를 편성.

이는 전년대비 약 2.65% 증액된 결과(2024년 90억 6,000만 크로나, 약 1조 2,144억 원).

해당 예산은 2025년 정부 전체 예산의 0.65%에 불과하며, 이 비율은 최근 20년 중 최저점임.

한편 스웨덴 문화부 파리사 릴리에스트란드(Parisa Liljestrand) 장관은

“문화를 위한 더 많은 돈이 있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돈을 위한 더 많은 문화가 있다고 말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2025년 문화부 세부 예산안을 발표(9.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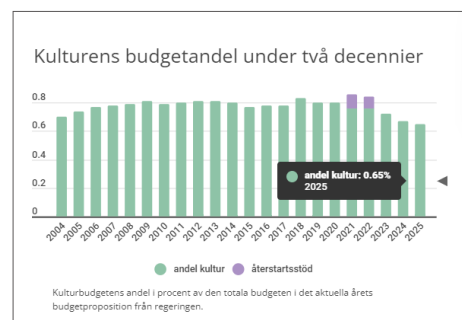
‘아동 및 청소년의 문화 접근성 향상과 독서 진흥’, ‘문화유산 보호’, ‘스웨덴 내 유대인 생활 강화’가 그에 해당.

특히 5,000만 크로나(약 67억 원)가 추가 배정된 ‘창의 학교(Skapande skola)’가 전년대비 가장 높은 예산 증가율(28%)을 보임.

이어 ‘살아있는 역사 포럼(전년대비 20%)’, ‘국가 유물 관리국(전년대비 9%)’ 순으로 증액됨



스웨덴 문화부의 2025년 세부 예산안을 전한
파리사 릴리에스트란드 장관
(스웨덴 정부 홈페이지, <https://www.regeringen.se/>)



2004년~2025년 문화부 예산 비중 추이
(《Magasin K》(2024. 9. 19). Fortsatt minskning av kulturens andel av budgeten, <https://magasink.se/2024/09/fortsatt-minskning-av-kulturens-andel-av-budgeten/>)

05. 10월 한류 동향 논평

■ K-영상 콘텐츠와 한식 경험 간의 연결성 강화 전략 고려해야

-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이 넷플릭스 비영어 TV 부문 1위를 기록하면서 국내외 요식업계에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기대. 요리와 음식이라는 보편적인 주제와 '흑과 백'이라는 직관적인 대결 구도가 세계적으로 흥행을 불러일으킬 만한 요소로 평가됨
- 한국에서는 <흑백요리사> 출연자들의 활발한 대외활동과 더불어 출연자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업장으로서의 유입이 대거 이루어지고 있음. 프로그램 우승자가 만든 디저트 상품이 한정판으로 생산되는 등 그 인기를 실감할 수 있음. 해외 수용자의 경우 <흑백요리사>를 서바이벌 프로그램으로 즐기거나 하는 동시에 한식에 대한 새로운 경험을 쌓고 싶어 하기도 함
- 이와 같은 요구에 발맞춰 뉴욕의 '코리아 페스트' 등 해외 각지에서 운영되는 한국 음식 행사에서도 시의적으로 통용될 수 있을 만한 K-푸드 관련 영상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어 보임. 일례로 <흑백요리사>의 운영 방식이나 콘셉트 등을 오프라인 행사 참여한 일반 대중이 연상할 수 있도록 한다면 영상 콘텐츠와 한식 경험 간 연결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임
- 또한 뉴욕의 '코리아 페스트'가 현재 민간 기획자의 주도 하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향후 기획이나 운영 차원에서 지원할 만한 요소가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음. 올해의 행사에는 뉴욕 현지에 위치하고 있는 업장을 중심으로 참여했는데, 향후에는 잠재적 수요자에 관한 사전 분석을 바탕으로 이들을 좀 더 장기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메뉴를 개발하거나 한국의 관련 전문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한층 고도화된 접근이 이뤄질 필요가 있음

■ 한강 노벨 문학상 수상 이후 한국 문학계의 해외 시장 공략 방안 요구

-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과 2025 바르샤바국제도서전에서 한국이 주빈국으로 초청받은 시기가 맞물리면서 한국 출판계와 문학계가 세계적인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됨. 국제도서전을 계기로 다시 한번 유럽 시장에 한강 작가의 문학 세계를 체계적으로 소개하는 한편, 이를 위시로 한국 문학계의 차세대 주자를 집중적으로 조명할 필요가 있음. 특히 한국 문학이 세대에 세대를 이어 국제적으로 공감받을 만한 문학적 상상력을 펼치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함
-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은 한편으로 번역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준 기회라 할 수 있음. 따라서 바르샤바국제도서전을 전후로 유럽의 잠재적 독서 시장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그에 따른 전략적 번역 작업이 이루어져야 함. 영어 이외에도 유럽에서 많이 활용되는 독어 및 프랑스어 번역 현황을 파악하고, 해당 언어권의 잠재적 독자들이 흥미로워할 만한 한국 문학을 순차적으로 번역하는 등 세부적인 전략 수립이 요구됨
- 또한 국제도서전과 같은 글로벌 출판 및 문학 행사와 더불어 한국어와 관련한 홍보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어 보임. 유럽에 산재해 있는 한국어학당과 문화원 등과의 협력을 통해 한국 문학과 언어의 동반 성장을 꾀하는 것도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됨

■ K-드라마의 꾸준한 인기에 힘입은 드라마 연관 상품 개발 필요

- 아시아 국가에서 인기를 얻는 한국 드라마를 살펴보면 <엄마친구아들>, <선재 업고 튀어> 등 비교적 근작도 있지만, 태국에서 3위를 차지한 <낭만닥터 김사부>처럼 국내 공개(2023)와 시차가 있는 작품도 상당함을 알 수 있음
- 매월 진행되는 K-드라마 순위 조사를 통해 알 수 있듯 많은 수의 작품이 동시다발적으로 인기를 끌며 아시아권에서 확고한 입지를 확보해나가는 것으로 보임. 실제 아시아 국가에서 높은 인지도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의 유명인은 가수뿐만 아니라, 배우와 예능인까지 포괄함
- K-드라마의 인기는 작품에 대한 수요에 그치지 않고, 작품 속에 등장하는 로케이션을 직접 방문하거나 노출된 상품 및 음식 등을 직접 소비하고자 하는 욕구로 확대됨
- 이 같은 관점에서 최근 유튜브와 틱톡 등 소셜미디어 서비스 내 쇼핑 기능을 신설하거나 전용 이커머스 플랫폼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음. K-드라마에서 노출되는 의류, 가전제품, 식품 등 다양한 상품을 이커머스와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음
- 또한 K-드라마에 등장하는 특정 장소나 세트 등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함. 한국을 직접 방문하는 이들을 위한 K-드라마 패키지를 제공하거나 외국 시청자들이 선망하는 드라마 속 장소인 포장마차 등을 일시적인 관광 행사의 일환으로 기획하는 방안 등을 떠올릴 수 있음
- 지속적인 K-드라마 팬층의 확대를 단순히 드라마 수용자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팬 경험을 2차적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한다면 K-드라마로의 유입을 장기적 안목에서 관리할 수 있을 것임

06. 문화체육관광 수출 동향

■ 음반, 영화·사진 수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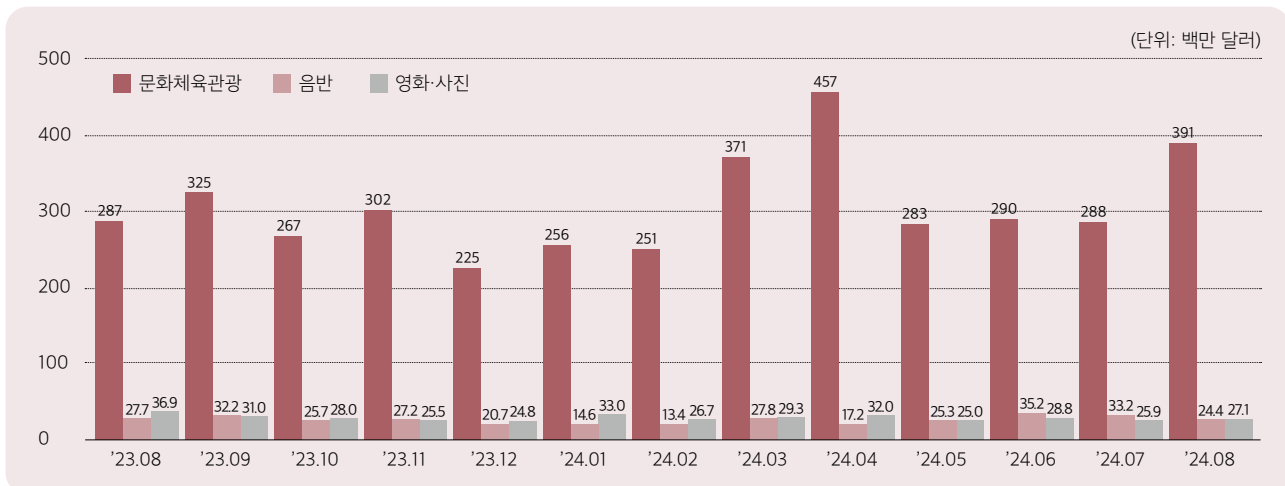
문화체육관광	'24년 8월 수출액은 3.9억 달러(약 5,356억 6,299만 원), 무역수지는 3.0억 달러(약 4,120억 8,900만 원) 적자 기록 수출 '23년 8월 대비 36.6% ▲, 전월 대비 35.8% ▲
음반	'24년 8월 수출액은 24백만 달러(약 329억 7,200만 원), 주요 11개 문화체육관광 품목 중 6.2% 차지 수출 '23년 8월 대비 11.9% ▼, 전월 대비 26.5% ▼
영화·사진	'24년 8월 수출액은 27백만 달러(약 379억 900만 원), 주요 11개 문화체육관광 품목 중 6.9% 차지 수출 '23년 8월 대비 26.7% ▼, 전월 대비 4.5% ▲

※ 주요 11개 문화체육관광 품목: 음반, 영화·사진, 스포츠용품, 레저용품, 예술품, 공예품, 악기용품, 출판품, 놀이용구용품, 미술품, 오락용품

(단위: 백만 달러)

기간	전체 수출액	문화체육관광 수출액	음반 수출액	영화·사진 수출액
'23년 8월	51,994	287	27.7	36.9
'23년 9월	54,651	325	32.2	31.0
'23년 10월	54,990	267	25.7	28.0
'23년 11월	55,561	302	27.2	25.5
'23년 12월	57,573	225	20.7	24.8
'24년 1월	54,757	256	14.6	33.0
'24년 2월	52,185	251	13.4	26.7
'24년 3월	56,569	371	27.8	29.3
'24년 4월	56,166	457	17.2	32.0
'24년 5월	58,041	283	25.3	25.0
'24년 6월	57,064	290	35.2	28.8
'24년 7월	57,469	288	33.2	25.9
'24년 8월	57,834	391	24.4	2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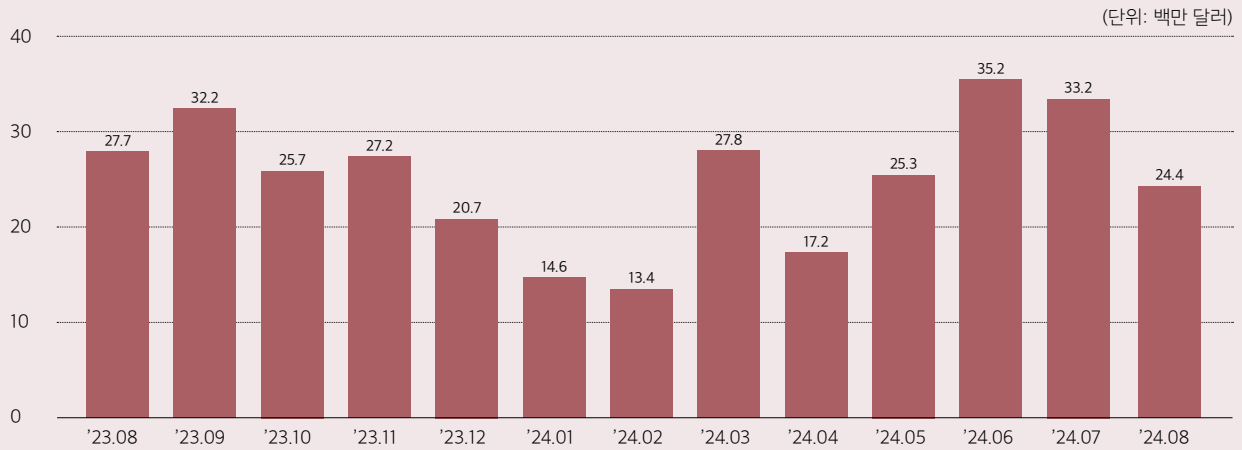
문화체육관광 수출액('23. 8.~'24. 8.)



* 현 수출액에는 온라인 수출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2024년 8월을 기준으로 집계됐으므로 해석에 주의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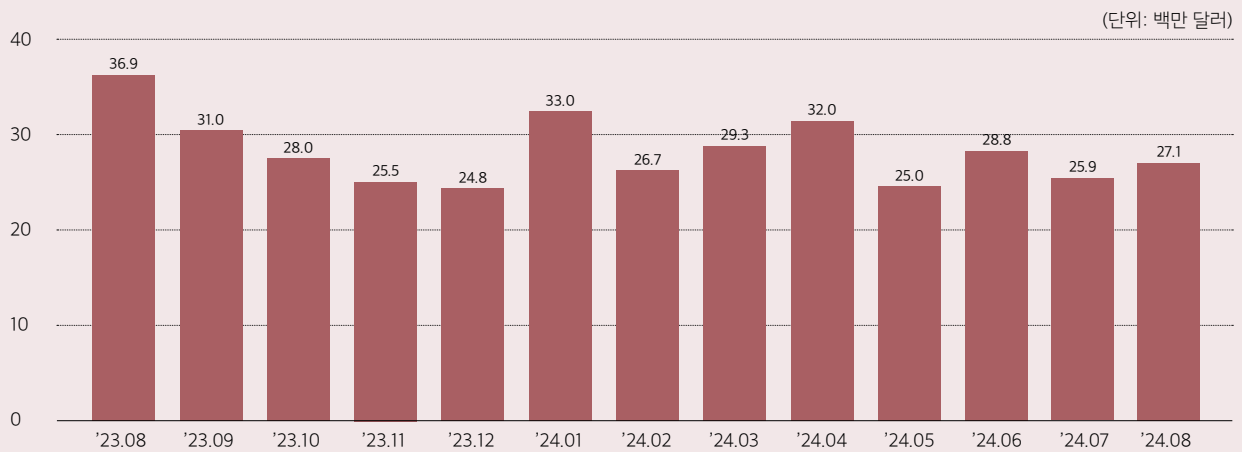
※ 자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24). 「문화체육관광 월간동향」 2024년 4월~9월호,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23, 2024). 「문화체육관광분야 수출입 동향보고」 2023년 1~12월, 2024년 1~3월호,
관세청(2024). 「수출입통관자료」.

음반 수출액('23. 8. ~ '24. 8.)



* 자료: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수출입 실적(품목별), HS코드 8523.49.1030 비디오 녹화된 것, HS코드 8523.49.1040 음성만을 기록한 것(CD, V-CD, DVD 등을 포함한 매체로 제작된 물품을 의미하며, 축음기용의 레코드판을 포함)

영화·사진 수출액('23. 8. ~ '24. 8.)



* 자료: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수출입 실적(품목별), HS코드 37 사진용이나 영화용 재료, HS코드 90 광학기기, 사진용기기, 영화용기기, 측정기기, 검사기기, 정밀기기, 의료용기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단위: 천 달러)

기간	총계	음반		영화·사진		
		영상물	음반	총계	촬영현상기기	필름
'23년 8월	27,701	551	27,150	36,864	8,237	28,627
'23년 9월	32,162	409	31,753	30,977	5,831	25,145
'23년 10월	25,692	468	25,224	27,958	2,767	25,191
'23년 11월	27,190	760	26,430	25,532	4,034	21,498
'23년 12월	20,736	654	20,082	24,834	2,581	22,253
'24년 1월	14,596	591	14,005	32,976	2,133	30,843
'24년 2월	13,387	520	12,867	26,736	5,026	21,710
'24년 3월	27,809	572	27,237	29,252	2,360	26,893
'24년 4월	17,212	454	16,758	32,032	-	-
'24년 5월	25,277	511	24,766	24,992	-	-
'24년 6월	35,240	553	34,687	28,794	-	-
'24년 7월	33,201	1,292	31,909	25,910	-	-
'24년 8월	24,414	737	23,678	27,109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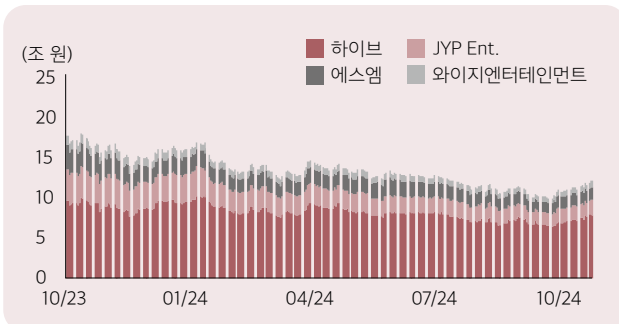
* 「문화체육관광분야 수출입 동향보고」가 「문화체육관광 월간동향」에 편입되면서 2024년 4월부터 영화·사진 세부 수치는 공개되지 않음

07. 엔터/미디어 주가 동향 [2024.9.25.~10.23.]

■ 코스피 -1.2% / 코스닥 -2.9% vs 엔터 +13.9% / 미디어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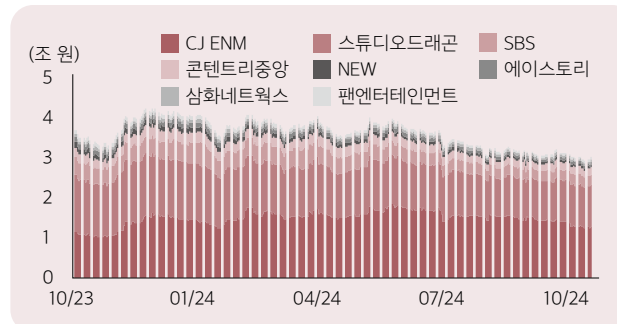
- 시장** 분석기간 코스피(-1.2%)와 코스닥(-2.9%)은 하락.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이 한층 더 개발돼 투자심리를 끌어올렸고, 10월 넷째 주에 들어서며 야당의 금투세 시행 폐지(유예)가 유력해짐. 그러나 미국 대선을 2주 앞두고 불확실성이 또다시 확산되며 고금리, 강달러 환경이 조성됐고, 중국의 경기 부양 정책이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발표되면서 미국, 중국 등으로 외국인 수급 이탈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 엔터/미디어** 2024년 9월(이하 지난호)에 담았던 희망회로가 통함. 밸류업 서프라이즈, 저가매수, 텅텅 빈 수급 등을 이유로 엔터/미디어 업종에 유의미한 자금 유입이 시작됐기 때문. 동기간 엔터 4사(하이브/JYP Ent./에스엠/와이지엔터테인먼트) 합산 시가총액은 +13.9% 상승해 시장을 크게 아웃퍼폼했고, 미디어 8사(CJ ENM/스튜디오드래곤/콘텐츠리중앙/SBS/에이스토리/팬엔터테인먼트/삼화네트웍스/NEW) 합산 시가총액은 -2.6% 하락했지만 하락폭은 예전 대비 훨씬 줄어듦. 코스피 내 하이브의 시가총액 비중은 0.39%(9/24 0.33%), 코스닥 내 기타 엔터 3사의 시가총액 비중은 1.18%(9/24 1.01%)로 상승한 반면 코스닥 내 미디어 7사의 시가총액 비중은 아직도 0.84%로 1%를 넘기지 못하고 있음. 엔터/미디어 섹터의 공통점은 뚜렷한 저점 확인, 앞으로의 산업 회복, 이에 따른 주가 반등이 기대된다는 것임

엔터 4사 합산 시가총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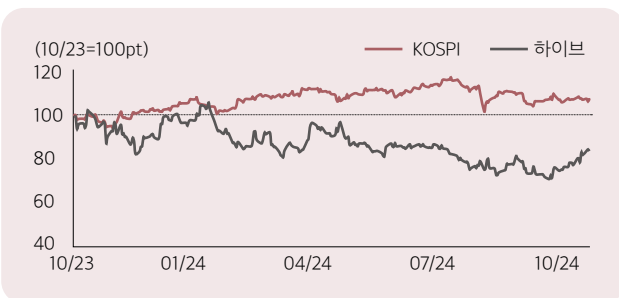
* 출처: QuantiWise, 신한투자증권

미디어 8사 합산 시가총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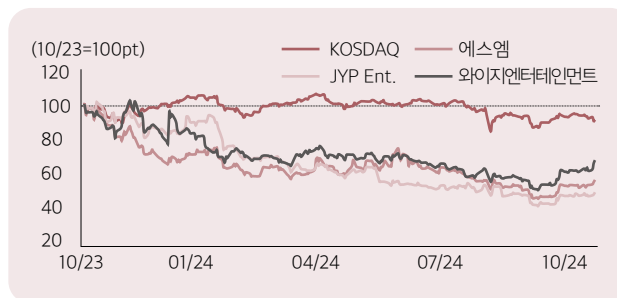
* 출처: QuantiWise, 신한투자증권

코스피 vs 하이브 상대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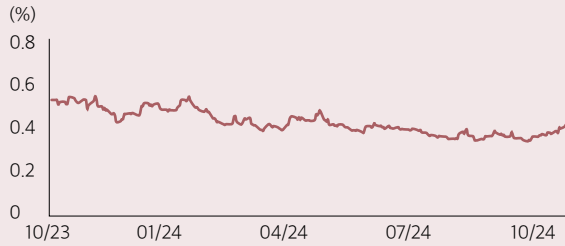
* 출처: QuantiWise, 신한투자증권

코스닥 vs 엔터주 상대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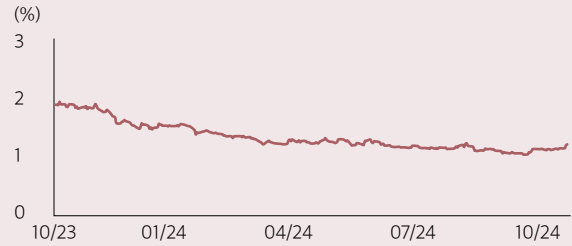
* 출처: QuantiWise, 신한투자증권

코스피 내 하이브 시가총액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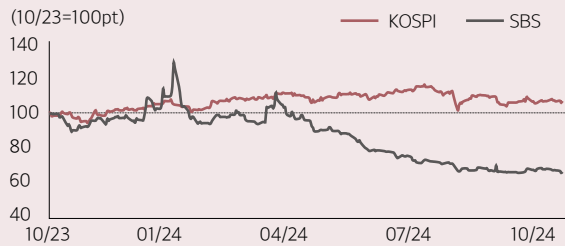
* 출처: QuantiWise, 신한투자증권

코스닥 내 엔터주 시가총액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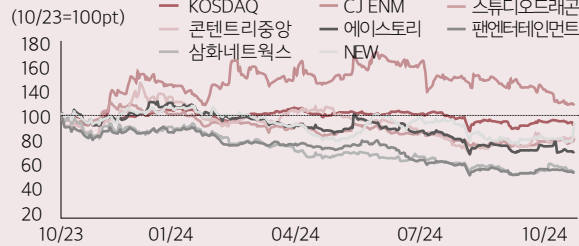
* 출처: QuantiWise, 신한투자증권

코스피 vs SBS 상대 수익률



* 출처: QuantiWise, 신한투자증권

코스닥 vs 미디어주 상대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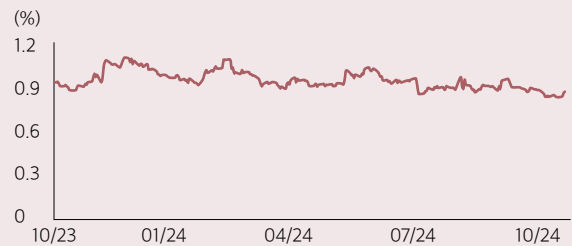
* 출처: QuantiWise, 신한투자증권

코스피 내 SBS 시가총액 비중



* 출처: QuantiWise, 신한투자증권

코스닥 내 미디어주 시가총액 비중



* 출처: QuantiWise, 신한투자증권

■ 엔터: 펀더멘털과センチ멘털 리스크 해소 국면

- 종목별로 보면 동기간 대장주 하이브는 +19%나 올랐고, JYP Ent는 +9%, 에스엠은 +16%, 와이지엔터테인먼트는 +21% 상승하며 오랜만에 시장 지수 대비 크게 상회함. 특이사항으로는 ① 뉴진스 하니의 국정감사 출석 ② 하이브의 위버스 플랫폼 유료화 공식 발표 ③ BTS 진 솔로 컴백(11.15) ④ 블랙핑크 로제 음원의 글로벌 흥행(와이지엔터테인먼트와 YG PLUS 급등 견인) ⑤ 세븐틴, 에스파 등 대표 IP의 컴백이 있었음
- 가장 중요한 것은 엔터 주가가 저점이라는 인식이 시장에 형성됐다는 점임. 지난 1년간 주가를 무너뜨린 배경에는 ① 펀더멘털 측면에서 앨범의 피크아웃(Peak out), ②センチ멘털 측면에서 다수 아티스트의 사건 사고, 하이브-어도어의 마찰인데, 두 리스크가 모두 해소되는 지점에 이르렀기 때문
- 2023년 말부터 불거진 앨범의 피크아웃 우려는 케이팝산업 전반에 걸친 피크아웃으로 번짐. 엔터업종에서 객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는 앨범 판매량이 유일한데, 컴백하는 아티스트마다 앨범 초동 판매량이 전작 대비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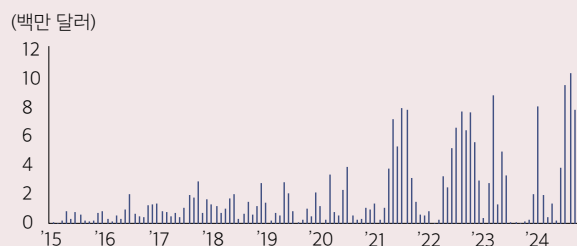
- 그러나 해당 지표의 감소를 산업 전반에 걸친 피크아웃으로 해석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음. ① 앨범 감소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중국 공구 물량의 축소임. 관세청에 따르면 2023년 하반기 중국향 앨범 수출액은 제로에 가까웠으나, 시간이 지난 현재의 데이터는 또다시 레코드 하이를 경신 중. 알다가도 모를 일이지만 어쨌든 지표가 다시 회복됐다는 점이 핵심. ② 팬덤 소비의 이동. 앨범은 코로나19의 인플레이션이 반영됐다고 판단됨. 오프라인 공연이 없었던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유일하게 가능했던 덕질 소비는 앨범 구매로, 평소 한두 개의 앨범을 구매하던 팬들도 4~5개까지 구매할 수 있었음. 대규모 공연이 활성화된 지금은 이야기가 다름. 팬들은 다시 앨범은 일반적으로 구매하고 그 돈을 아껴 콘서트 티켓 굿즈 등으로 눈을 돌림. 앨범 판매량 축소는 팬덤 자체의 소비가 감소하는 것이 아닌 팬덤 소비의 이동이며 오히려 확산임. 산업 전반에 걸친 피크아웃은 절대 아님. 실제로 올해 상반기까지 발표된 엔터사들의 사업부문별 매출을 보면 앨범은 감소했지만 전체 매출액의 크기가 줄어들진 않은 것으로 확인됨. 이는 기타 팬덤 소비로의 이동을 의미
- 하이브-어도어 사태와 관련해 시장은 더 이상 뉴진스의 활동, 향후 방향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음. 하이브 실적에서 뉴진스의 이익 기여도는 한 자릿수로 전망되는 만큼 실적 측면에서 악영향은 크지 않아 이미 내년도 하이브 실적에서 뉴진스를 제거하기 시작. 시장은 불확실성을 가장 두려워하기에 이를 야기했던 해당 이벤트 자체가 '종료되는 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함. 뉴진스의 직접적인 개입(라이브 방송, 국정감사 출석 등)으로 보다 명확한 하이브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음. 조심스럽지만 해당 사태는 후반전에 진입했다고 판단됨. 최근 1년 동안 주가를 억눌러왔던 펀더멘탈,センチ멘탈의 두 리스크가 모두 해소되는 국면임
- 앞으로 기대할 것도 많아짐. ① 기저효과가 우호적임. 2023년 4분기부터 고마진 앨범이 감소했고 올해 상반기 신인 데뷔가 많았던 만큼 초기 마케팅 비용이 많이 쓰였다면 올해 4분기부터는 이 모든 것이 비용 부담 완화, 우호적인 전년 기저효과로 다가올 수 있음. ② 다수의 대형 IP 컴백이 올해 4분기에, ③ 얼어붙은 투자심리를 녹일만한 BTS, 블랙핑크 완전체 등 슈퍼 IP 컴백이 2025년 예정돼 있음. 특히 BTS는 2025년 여름까지 전원 군 전역, 3Q25~4Q25 앨범 발매, 4Q25~2026년까지 지금껏 보지 못한 규모의 월드투어를 진행할 예정. 하이브는 위버스 유료화(12.1~)를 공식 선언함. 타사대비 높은 밸류에이션(멀티플)을 받는 이유 중 하나는 직접 플랫폼을 크게 키우고 있다는 점이기에 때문에 모멘텀으로 작용

엔터 4사 앨범 판매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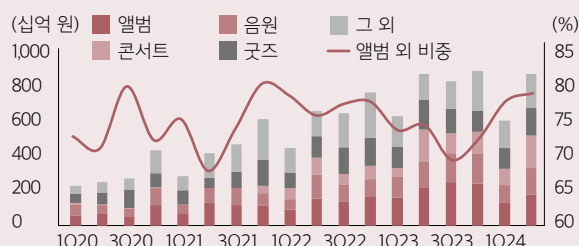
* 출처: 씨클차트, 신한투자증권

중국 앨범 수출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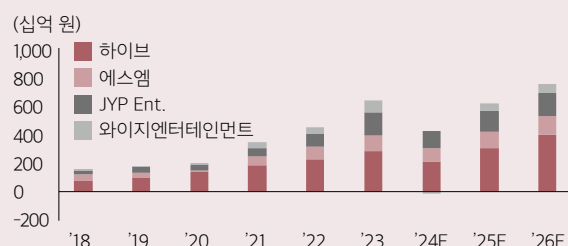
* 출처: 관세청, 신한투자증권

하이브+JYP Ent.+에스엠 사업부문별 매출액 추이



* 출처: 신한투자증권

엔터 4사 합산 영업이익 추이



* 출처: 신한투자증권

■ 미디어: 더욱 단단해진 바닥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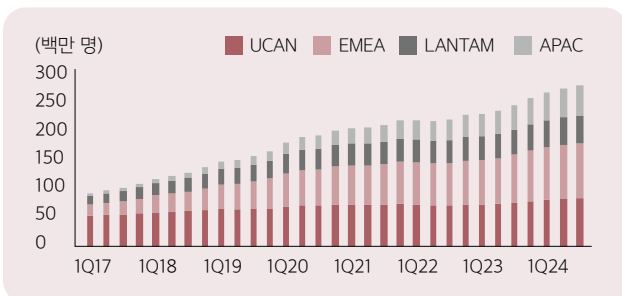
- 동기간 CJ ENM은 -10%, 스튜디오드래곤은 +8%, 콘텐츠리중앙 -7%, SBS는 -0%, 중소형 제작사들은 NEW +4%, 에이스토리 -4%, 삼화네트웍스 +18% 변동. 합산으로 보면 하락했지만 하락폭은 예전 대비 확실히 줄어들어 미디어 업종에도 슬슬 저가 매수 유입이 확인됨. 특이사항으로는 ① CJ ENM이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연간 1조 원 규모의 콘텐츠 투자를 지속할 것으로 발표했고 ② 스튜디오드래곤의 보유 IP 드라마인 <정년>의 시청률 흥행이 있었으며 ③ 티빙-웨이브의 연내 합병 전망 보도 ④ 넷플릭스의 3Q24 호실적 발표가 있었음
- 당장의 미디어산업은 불황이나 호전될 기미가 슬슬 포착되고 있음. 아쉽게도 기초 수익이 되는 광고의 반등은 아님. 광고 회복을 위해서는 경기 개선이 선행돼야 하는데 아직 그러한 큰 움직임은 없기 때문. 회복의 출처는 지난호에서 서술했던 드라마 수익률 변화임
- 드라마 수익률은 투입한 제작비 대비 얼마만큼의 편성/협찬/판매 매출을 올려 최종 프로젝트 마진, 이익을 남기느냐의 싸움인데 지난 3년간 미디어 제작산업의 P(Price, 리쿠플), Q(Quantity, 제작편수), C(Cost, 제작비)는 매우 엉망이었음. 넷플릭스의 인플레이션으로 배우 중심의 크리에이터 비용, 스태프 인건비, 체류비 등 총 제작비가 단기간 너무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 2020년만 해도 회당 전체 제작비가 7~8억 원 내외였는데 이제는 주연 배우 1인에게만 회당 5억 원이 족히 지급됐을 정도 반면 매출액은 제한적이었음. 광고 수익이 줄어든 방송사가 편성 리쿠플을 줄이는 것도 모자라 드라마 슬롯을 축소했기 때문. 제작사 입장에서는 먹거리도 사라짐. 지난 3년 동안 <오징어 게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무빙>과 같은 흥행 K-콘텐츠가 있어 급하게 성장한 데 따른 성장통, 아니 부작용이라 할 정도로 산업이 좋지 않았음
- 지난호에서 서술했듯 감히 예상컨대 앞으로의 P, Q, C는 대세 호전될 전망. 넷플릭스의 개입 덕에 주연 배우의 회당 출연료에 상한선이 생겼고, 크리에이터 포함 제작산업 참여자들도 단기간 매우 과하게 오른 제작비에 대한 부담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 업계 최전방에 있는 스튜디오드래곤에 따르면 기획 중인 드라마 제작비 단가가 하향 조정되고 있고, 크리에이터 비용 효율화 방안 또한 적극 모색되고 있음. 반면 매출액 사정도 더 나아짐. 최근 티빙, 웨이브, 쿠팡플레이 등 국내 OTT의 월간 활성 이용자수(MAU) 상승이 눈에 띄는데, 이들의 약진 덕에 넷플릭스가 판권 리쿠플을 상향 제시해 주고 있기 때문. 마침 스튜디오드래곤과 넷플릭스의 재계약도 올해 말 예정돼 있음. CJ ENM이 <선재 업고 튀어>, <손해 보기 싫어서> 등 평일 드라마 흥행으로 잠시 폐지했던 수목드라마 슬롯을 재개하면서 수주도 많아짐. 제작사 입장에서는 지난 3년간의 불황에서 벗어나 제작비는 감소하고, 리쿠플은 높아지고, 제작편수는 늘어나는 것

■ 글로벌 OTT: 투자 우선순위 변경

- 국내외 OTT 간 경쟁 심화에 따른 제작사의 판권 리쿠플 상향 조정 등 긍정적인 포인트 외에도 또 한 가지 희소식이 있음. 넷플릭스의 K-콘텐츠 투자 우선순위가 제작사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
- 넷플릭스가 콘텐츠를 공급해가는 방식은 두 가지임. 제작비의 110%를 지급하고 모든 판권을 독점하게 되는 '오리지널', 제작비의 50~70%만 지급하고 한국, 중국 판권만 제외한 모든 글로벌 방영권을 확보하는 '동시 방영'이 그에 해당. 넷플릭스 입장에서 전체 IP를 독점하는 오리지널 작품이 <오징어 게임>처럼 흥행하면 좋겠지만 무조건적으로 담보되지는 않음. 실제로 넷플릭스 오리지널 한국 시리즈 중 <더 글로리> 이후 크게 이슈된 작품이 없음. 넷플릭스가 올해 상반기 트래픽 분석을 토대로 K-콘텐츠 순위를 공개했는데 톱 10, 톱 100, 톱 200 모두 오리지널 대비 동시 방영 콘텐츠들의 인기가 훨씬 더 좋았음. 넷플릭스도 콘텐츠 투자 실익을 따진다면 앞으로는 오리지널 대비 동시 방영 구매에 무게를 더 둘 수밖에 없을 것
- 넷플릭스의 3Q24 실적이 공개됨. 연결기준 매출액 98억 달러(YoY +15%), 영업이익 29억 달러(YoY +52%)로 시장 기대치를 상회함. 특히 가장 중요한 유료 가입자 순증은 +507만 명으로 QoQ 예상치를 상회해 넷플릭스 총 가입자는 이제 28억 명에 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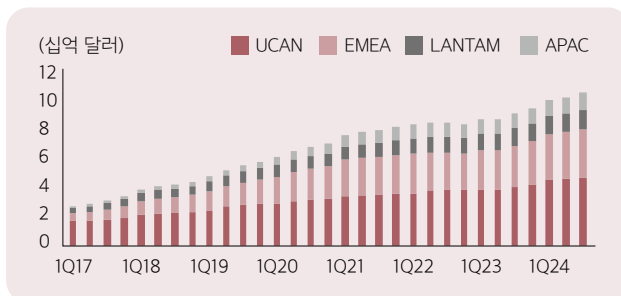
- 전년대비 지역별 순증은 UCAN, EMEA, LATAM, APAC 각각 +69만, +217만, -7만, +228만 명을 기록. APAC 가입자 및 매출 성장률이 가장 높음. 넷플릭스는 일본, 한국, 태국, 인도에서 제작한 강력한 로컬 콘텐츠가 전 지역 고른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고 언급. 2024년 3분기 K-콘텐츠 중에서는 영화 <무도실무관>, 예능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 등이 높은 시청 성과를 보였고, 4분기 모두가 기다려 온 <오징어 게임 2>에 대한 기대감을 다시 한번 부추김
- 넷플릭스의 실적 발표에서 도출해 볼 수 있는 시사점은 두 가지임. ① 가장 높은 성장을 보이는 APAC 지역을 위해서라도 K-콘텐츠 수급을 지속할 수밖에 없음. ② 오리지널 콘텐츠 장르에 대해서는 드라마 대신 예능 수급 비중을 높일 수 있을 것. 제작비가 훨씬 덜 들어가기 때문. 엄연히 시청 인구의 총과 성격이 다르기에 제작비 전체를 쏟아부어야 하는 오리지널은 제작비가 낮은 예능으로, 투자 효율을 높이기 위해 동시 방영은 드라마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음. 이 모든 P, Q, C의 변화, 글로벌 OTT 간의 경쟁 심화, 넷플릭스의 콘텐츠 수급 방식 변경 등은 제작사가 조금 더 IP를 확보할 수 있게끔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주고 있음

지역별 넷플릭스 구독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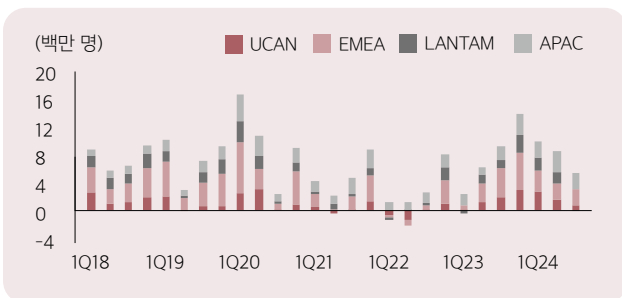
* 출처: Bloomberg, 신한투자증권

지역별 넷플릭스 매출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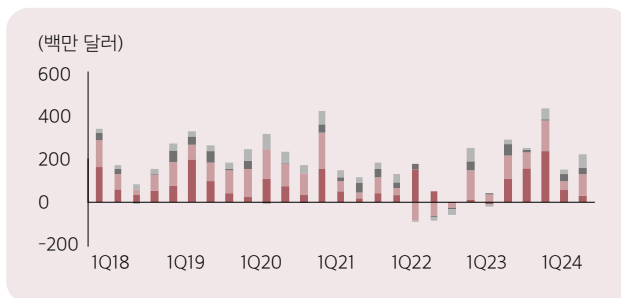
* 출처: Bloomberg, 신한투자증권

전분기대비 지역별 넷플릭스 가입자 순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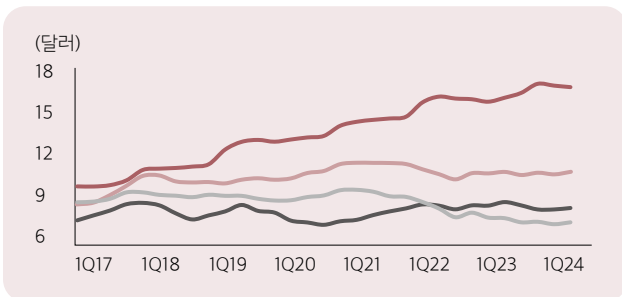
* 출처: Bloomberg, 신한투자증권

전분기대비 지역별 넷플릭스 매출액 순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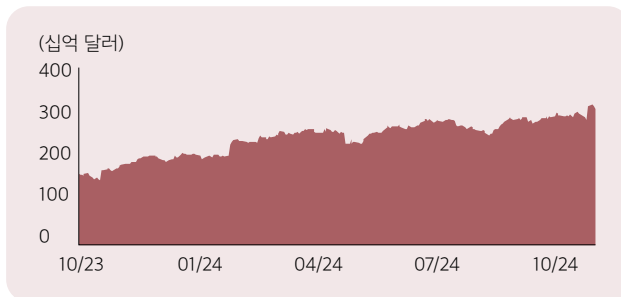
* 출처: Bloomberg, 신한투자증권

넷플릭스 ARPU(이용자당 평균 매출) 추이



* 출처: Bloomberg, 신한투자증권

최근 1년 넷플릭스 시가총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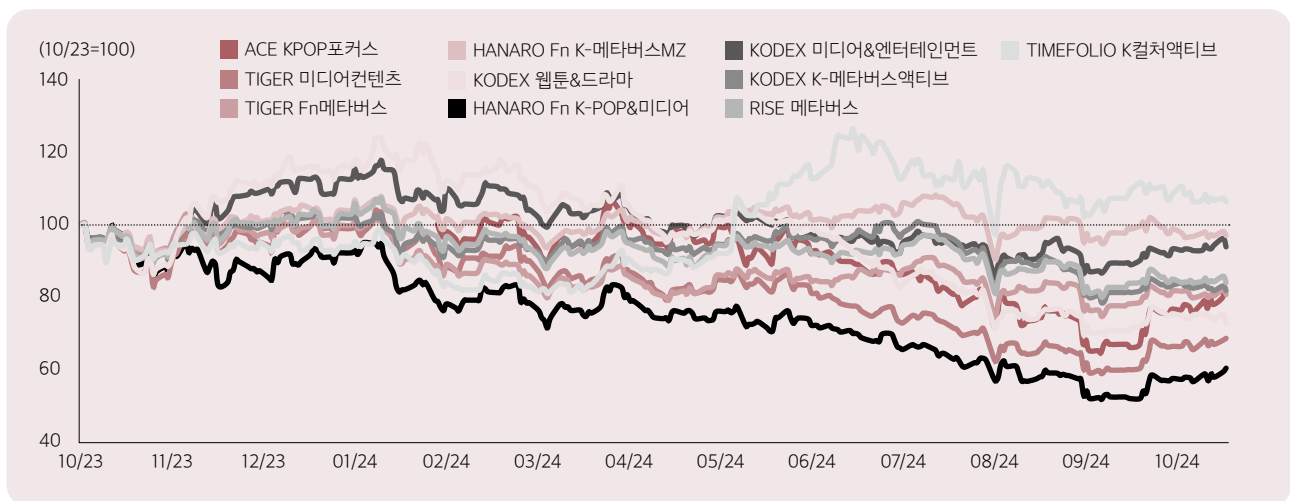


* 출처: Bloomberg, 신한투자증권

■ ETF: 구성 종목 변화에 따른 차별화된 퍼포먼스

- 엔터/미디어가 포함된 국내 ETF는 총 10개. 동기간 수익률은 ACE KPOP포커스 +19%, HANARO Fn K-POP&미디어 +13%, TIGER 미디어컨텐츠 +11%, KODEX 미디어&엔터테인먼트 +4%, TIGER Fn메타버스 +2%, KODEX K-메타버스액티브 +0.1%, HANARO Fn K-메타버스MZ -2%, RISE 메타버스 0%, KODEX 웹툰&드라마 +1%, TIMEFOLIO K컬처액티브 -4%
- 지난호와 다른 양상임. 지난 분석기간에는 엔터업종의 하락이 두드러졌기 때문에 엔터주가 아닌 인터넷/소프트웨어, 혹은 TIMEFOLIO K컬처액티브와 같이 화장품/바이오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든 ETF가 수익률을 방어했다면, 이번 분석기간에는 엔터업종의 비중이 높으면 높을수록 수익률이 좋았음. 엔터 4사의 비중이 절대적인 ACE KPOP포커스가 +19%나 오른 것만 봐도 알 수 있음. 2023년 10월과 비교해 보면 아직도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ETF 수익률이지만 최근 한 달 사이 많이 메꿔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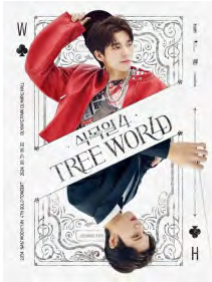
엔터/미디어 ETF 상대 수익률



* 출처: QuantiWise, 신한투자증권
주: ACE만 기준일은 상장일인 24년 1월 30일

08. 해외 공연 현황 [2024.10.1.~31.]

- 16개국 33개 지역에서 한류스타 콘서트 59회 개최
- 김재중, 데이식스, 스트레이 키즈, 엔시티 드림, (여자)아이들, 제로베이스원, 태민, 투모로우바이투게더 등

한류스타	공연명	일자	장소	티켓가	규모
김재중	 20TH ANNIVERSARY 2024 KIM JAE JOONG ASIA TOUR CONCERT <FLOWER GARDEN>	10.13.	마카오 (코타이, 브로드웨이 극장)	MOP1,799~999 (약 31만 원 ~17만 2천 원)	2천 5백석
		10.19.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ICE BSD 홀 5)	Rp3,000,000 ~1,250,000 (약 26만 6천 원 ~11만 원)	5천석
남우현	 2024 NAM WOO HYUN CONCERT <식목일4-TREEWORLD>	10.5.	대만 (타이베이, NTU 스포츠 센터)	NT\$5,200~2,600 (약 22만 3천 원 ~11만 1천 원)	4천 2백석
		10.12.~13.	홍콩 (몽콕, 맥퍼슨 경기장)	HK\$1,588~888 (약 28만 2천 원 ~15만 7천 원)	1천 8백석
		10.26.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EX-8)	RM688~388 (약 21만 8천 원 ~12만 3천 원)	1천 2백석

데이식스



DAY6 3rd WORLD TOUR
<FOREVER YOUNG>

10.5. ~6.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메가 스타 아레나)	RM898 ~ 398 (약 28만 5천 원 ~12만 6천 원)	5천석
10.13.	발리, 누사 두아 컨벤션 센터		4천 6백석
10.16.	인도네시아 수라바야, 자와 포스 아레나	Rp3,500,000 ~1,400,000 (약 31만 원 ~12만 4천 원)	5천석
10.19. ~20.	자카르타, 비치 시티 인터내셔널 스타디움		2만석

솔라



SOLAR 2nd CONCERT
<COLOURS>

10.6.	마카오 (코타이, 브로드웨이 극장)	MOP1,688 ~ 888 (약 29만 8천 원 ~15만 3천 원)	2천 5백석
-------	------------------------	---	--------

수호



2024 SUHO CONCERT
<Welcome to SU:HOME>

10.11.	오사카, 페니체 사카이	-	2천석
	일본		
10.12.	나고야, 니테라 홀	-	2천 2백석

스트레이 키즈



Stray Kids World Tour
<dominate>

10.19.	멜버른, 마블 스타디움		5만 6천석
	호주	AU\$377 ~ 132 (약 34만 5천 원 ~12만 원)	
10.26.	시드니, 알리안츠 스타디움		4만 5천석

엔시티 드림



2024 NCT DREAM
WORLD TOUR
<THE DREAM SHOW 3
: DREAM()SCAPE>

10.30.

네덜란드
(로테르담, 아호이 아레나)

€325 ~ 67
(약 48만 5천 원 ~ 10만 원)

1만 6천석

(여자)아이들



2024 (G)I-DLE
WORLD TOUR
<iDOL>

10.4. ~ 6.

대만
(타이베이, 타이베이 아레나)

NT\$6,980 ~ 800
(약 30만 원 ~ 3만 4천 원)

1만 5천석

10.19.

태국
(방콕, 임팩트 아레나)

฿6,900 ~ 2,900
(약 28만 2천 원
~ 11만 8천 원)

1만 2천석

10.25. ~ 27.

마카오
(코타이, 갤럭시 아레나)

MOP1,899 ~ 699
(약 32만 7천 원 ~ 12만 원)

1만 6천석

10.31.

호주
(멜버른, 로드 레이버 아레나)

AU\$450 ~ 150
(약 41만 2천 원
~ 13만 7천 원)

1만 4천석

웨이션브이



2024 WayV CONCERT
<ON THE Way>

10.5.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겔로라 봉 카르노 경기장)

Rp2,950,000
~ 1,500,000
(약 26만 2천 원
~ 13만 3천 원)

1만 6천석

제로베이스원		10.5.	태국 (방콕, 임팩트 아레나)	฿6,500 ~ 2,900 (약 26만 6천 원 ~ 11만 8천 원)	1만 2천석
	2024 ZEROBASEONE THE FIRST TOUR <TIMELESS WORLD>	10.12.	필리핀 (마닐라, SM 몰 오브 아시아 아레나)	₱12,500 ~ 2,500 (약 29만 8천 원 ~ 5만 9천 원)	2만석
		10.26.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ICE BSD 5-6홀)	Rp3,400,000 ~ 1,200,000 (약 30만 1천 원 ~ 10만 6천 원)	1만 6천석

크래비티



2024 CRAVITY FAN-CON
<BEYOND YOUR
MEMOR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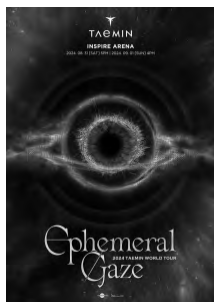
10.19. ~ 20.

홍콩
(몽콕, 맥퍼슨 경기장)

HK\$1,588 ~ 888
(약 28만 2천 원
~ 15만 7천 원)

1천 8백석

태민



2024 TAEMIN
WORLD TOUR
<Ephemeral Gaze>

10.19. ~ 20.

일본
(후쿠오카, 컨벤션 센터)

¥13,800
(약 12만 4천 원)

1만 3천석

10.26.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테니스 실내 체육관 스나안)

Rp3,500,000
~ 1,900,000
(약 31만 원
~ 16만 8천 원)

3천 7백석

투모로우 바이투게더		10.2.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ICE BSD 홀)	Rp3,400,000 ~2,000,000 (약 30만 1천 원 ~17만 7천 원)	1만 6천석
		10.5. ~6.	대만 (타이베이, NTSU 아레나)	NT\$6,800 ~3,800 (약 29만 2천 원 ~16만 3천 원)	1만 5천석
메이딘		10.5. ~6.	일본 (오사카, 오릭스 극장)	¥10,000 (약 9만 원)	2천 4백석
		10.5. ~6.	일본 (오사카, 오릭스 극장)	¥10,000 (약 9만 원)	2천 4백석
아르테미스		10.11.	핀란드 (헬싱키, 하우스 오브 컬처)	-	1천 5백석
		10.13.	폴란드 (바르샤바, 프로그레시아)	-	2천석
		10.15.	독일 쾰른, 칼스위크 빅토리아	-	1천석
		10.17.	독일 베를린, 헉슬리 뉴 월드	-	3천석
		10.20.	프랑스 (파리, 샬 플레엘)	-	2천석
		10.23.	영국 (런던, 인디고 앳 더 O2)	-	2천 7백석
		10.26.	스페인 (바르셀로나, 살라 라즈마타즈)	€165.85 ~59.40 (약 24만 7천 원 ~8만 8천원)	2천석
		10.26.	스페인 (바르셀로나, 살라 라즈마타즈)	€165.85 ~59.40 (약 24만 7천 원 ~8만 8천원)	2천석

영파씨



YOUNG POSSE
1st American Tour
<The Hungry Tour>

10.15.	마이애미, 마이애미 극장 센터	3백석	
10.16.	올랜도, 레벨 13	7백석	
10.18.	샬럿, 파르 센터 극장	4백석	
10.20.	필라델피아, 탬플 퍼포밍 아트 센터	1천 2백석	
10.21.	뉴욕, 퀸스 극장	\$250~50 (약 34만 5천 원 ~6만 9천 원)	5백석
10.23.	콜롬버스, 킹 오브 클럽스	8백석	
10.24.	디트로이트, 가든 극장	9백석	
10.26.	시카고, 로건 스퀘어 오디토리엄	7백석	
10.28.	캔자스시티, Gem 극장	5백석	
10.31.	피닉스, 스테이지 웨스트	7백석	

미국

위클리



2024
Weekly The 1st
GRAND AMERICA TOUR
<WU>

10.19. (2회)	일본 (가와사키, 수퍼노바 가와사키)	¥23,000~7,000 (약 23만 1천 원 ~13만 2천 원)	5백석
----------------	-------------------------	---	-----